

대학생들 '학점 리모델링' 성행

취업 위해 성적 포기·수강 과목 취소... 평점 올리기

졸업 1~2년 늦춰지고 인기과목 편중 부작용도

조선대 4학년이 재학 중인 고모(여·24·경상대학)씨는 지난 9월 말 1학년 때 들었던 '스페인어' 등 3개 교양과목에서 C학점 등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받아, 이들 과목 9학점을 포기했다.

고씨는 이미 졸업학점(140학점) 이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 학교가 보장하는 '성적포기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덕분에 평균 3.9(4.5점 만점)점이었던

학점이 4.1점으로 뛰어올랐다. 취업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학생들이 취득했던 학점을 포기하거나, 듣고 있던 수업을 취소해 점수 받기 좋은 과목으로 바꾸는 등 '학점 리모델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학생들에게 '수업취소' 신청을 받은 결과 1천770과목이 취소됐다. 전남대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

이 수업일수 4분의1이 지나기 전 '수업취소' 기간에 요청할 경우 삭제해 주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4학년이 한해 1학과 2학과 두 차례에 걸쳐 18학점까지 '취득학점 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선대도 2학기 '취득학점 포기'신청을 접수한 결과 1천490명이 4천440건의 과목을 취소했다. 한 명당 평균 3과목을 '듣지 않은 수업'으로 한 셈이다.

광주대도 올 2학기부터 성적취소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학점포기나 과목취소가 성

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나친 학점포기로 졸업이 1~2년 이상 늦춰지거나 점수를 잘 주는 특정 수업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있다.

전남대에서 5학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은 19일 현재 558명으로 2006년(435명)에 비해 28%가 늘었으며, 목표대도 184명으로 지난해(170명)에 비해 8%가량 증가했다.

또 점수 받기 쉬우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정원이 일찍 마감되기 때문에 수강신청 기간 학생들은 재빨리 학교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이 빠른 PC방에서 신청하는 등 일부 과목 '솔링 현상'도 심하다.

조선대는 김병조 초빙강사의 '현대사회와 명심보감'을 196명이 신청했으며, 전남대는 양동욱 시간강사의 '심 심리학' 과목을 219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대부분의 교양과목이 100여 명 안팎인데 비해 이들 인기과목은 2배 이상 많은 학생이 듣고 있는 셈이다.

전남대 최모(24·인문대 4)씨는 "선배들 중엔 취업을 위해 4학년 이후에도 2년 이상 학점을 나눠서 들으며 일부러 졸업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취업하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1~2학년 때부터 신경 쓰는 것이 요즘 대학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학생들이 최근 본과 257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대학생들은 취득 학점 포기나 수업 취소 제도 등을 이용해 점수 받기 좋은 과목으로 바꾸는 등 학점 리모델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한파'

기온 영하 '뚝'...어제 전남에 첫 눈



무등산 고드름

휴일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한 무등산 장불재 부근 바위가 얼어붙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9일 아침 광주·전남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출근·등교길에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오전 광주가 영하 3도, 구례와 장흥 각 영하 6도 등 대부분의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는 곳에 따라 낮 한 때 비나 눈발이 내리고, 얼음도 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요일인 20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게 된다.

한편 휴일인 18일 오전 최저기온은 광주 4.5도, 목포 5.7도, 여수 4.4도, 보성 2.9도, 구례 2.7도, 진도 1도 등으로 올 겨울들어 가장 추웠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여수·해남·완도 등에 강풍주의보를 내렸고, 같은 날 밤 9시에는 서해남부연안에는 초속 13~14m의 강풍과 3~4m 높이의 파도로 인해 풍랑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 새벽 2시 20분엔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와 흥도에 강풍경보를 발효했다.

이로 인해 목포항·완도항 등에서 출발하는 52개 항로 대부분이 결항했다.

목포항의 경우 풍랑·강풍주의보로 인해 23개 항로 중 제주도 등 3개 항로를 제외한 20개 항로가 결항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진도·장성에서는 눈발이 날려 공식적인 광주·전남지역 '첫눈'으로 기록됐다.

/광림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361) 김중두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로, 신도시, 신도시, 신도시

KCC향토, 시스템향토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로, 신도시, 신도시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대낮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 '덜미'

○대낮에 승객 20여 명이 탄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 이 경찰서형.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최초(35·전북 익산시)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께 군산에서 광주로 고속버스를 타고 오던 중 정읍휴게소 인근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김모(여·25)씨의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더듬었다는 것.

○최씨는 자신의 점퍼를 김씨의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성추행을 했는데, 경찰에서 "잠든 김씨의 모습이 너무 예뻐 순간 이성을 잃고 나쁜 짓을 했다"고 진술.

○경찰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 북구 운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대기하고 있다가 최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 보물선 동전 28t 왜 실었을까

"배 무게중심 잡기 위해"

日 사쿠라키 교수 주장

700년 가까이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지난 1976년 깨어난 신안 보물선 밑바닥에 실린 28t, 약 800만 점의 동전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사쿠라키 신이치 교수는 오는 24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릴 '신안선 출토 금속 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에 앞서 18일 그 해답을 제시했다.

사쿠라키 신이치 교수는 미리 배포한 '신안선 출토 동전의 용도와 성격(일본 관점에서)'이라는 논문을 통해 "신안선 배 바닥 부근에 그 많은 동전이 실린 것은 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밸러스트 기능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동전을 실어 지금의 '워터 밸러스트(해수를 유입시키거나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배의

무게 중심을 수심 아래로 낮춰 전복을 방지하는 방법) 기능'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동전은 또 일본에 도착하면 외국 화폐이자 경제적인 기능을 가진 화폐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편리한 화물로, 상품이자 화폐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서 "중세 일본에서의 사용 화폐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신안선은 1323년 중국 경원(慶元)에서 무역품을 가득 싣고 출항해 일본 하카다(博多)와 교토(京都) 쪽으로 향하던 중 지금의 신안군 증도면 앞바다에서 좌초, 침몰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승용차·시내버스 충돌

해남서 6명 중·경상

18일 오전 8시19분께 해남군 산이면 49번 지방도로에서 10다36XX호 프라이드 승용차(운전자 박모·26)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목포 Y운수 소속 전남70아 12XX호 시내버스(운전자 황모·67)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법원 '이수근 간첩사건 재심' 결정

서울고법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옛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배경옥(64)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수근 사건'은 1967년 3월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을 하다 한국에 망명했으나 1969년 다시 한국을 탈출한 뒤 붙잡힌 이수근씨를 중앙정보부가 "이씨는 위장귀순한 이중간첩"이라며 조작·발표한 사건이다. 이씨는 그해 7월 사형당했고, 이씨의 처조카인 배씨는 이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올해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규명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배

씨와 이수근씨를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밝혔다.

광양 산불 0.2ha 태워

18일 오전 11시40분께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 영세공원 인근 전주 이씨 문중 산에서 불이 나 0.2ha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전남도 소방항공기 1대와 광양시 공무원 등 57명이 출동,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사람 2명이 있던 곳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조이트레블 (주) 조이트레블

234-3222

신입 사원 구형

부동산

신입 사원 구형

무안 → 아문(廈門) 전세기 취항

799,000

899,000

999,000

1,099,000

1,199,000

1,299,000

1,399,000

1,499,000

1,599,000

1,699,000

1,799,000

1,899,000

1,999,000

2,099,000

2,199,000

2,299,000

2,399,000

2,499,000

2,599,000

2,699,000

2,799,000

2,899,000

2,999,000

3,099,000

3,199,000

3,299,000

3,399,000

3,499,000

3,599,000

3,699,000

3,799,000

3,899,000

3,999,000

4,099,000

4,199,000

4,299,000

4,399,000

4,499,000

4,599,000

4,699,000

4,799,000

4,899,000

4,999,000

5,099,000

5,199,000

5,299,000

5,399,000

5,499,000

5,599,000

5,699,000

5,799,000

5,899,000

5,999,000

6,099,000

6,199,000

6,299,000

6,399,000

6,499,000

6,599,000

6,699,000

6,799,000

6,899,000

6,999,000

7,099,000

7,199,000

7,299,000

7,399,000

7,499,000

7,599,000

7,699,000

7,799,000

7,899,000

7,999,000

8,099,000

8,199,000

8,299,000

8,399,000

8,499,000

8,599,000

8,699,000

8,799,000

8,899,000

8,999,000

9,099,000

9,199,000

9,299,000

9,399,000

9,499,000

9,599,000

9,699,000

9,799,000

9,899,000

9,999,000